

“KAIST가 진정한 세계 일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광형 KAIST 총장 인터뷰



미래 50년을 위한 신문화 전략 QAIST

“KAIST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 다음 50년
에는 KAIST가 진정한 세계 일류 대학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
니다. 이런 시점에서 총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 설렙니다. 우리 구성원이 많이 노

력하니 KAIST가 당연히 세계 일류 대학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시작을 여는
총장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AIST 개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제17대 KAIST 총
장으로 취임한 이광형 총장의 소감이다. 이 총장의 집무실에는 KAIST 조직도
가 거꾸로 걸려 있다. 학생, 교수 직원 모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 총장은 역대 KAIST 총장 중 누구보다도 이야깃거리가 많다. 드라마 <카이
스트>에 등장한 괴짜 총장으로서의 유명세 덕분이다. 놀랍게도 드라마에서의
모습은 결코 각본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총장의 평소 모습으
로부터 각본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총장은 최근 tvN의 예능인 ‘유퀴
즈온더블록’에 출연해 <카이트>가 방영되던 199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톡톡 튀는 ‘괴짜 교수’의 매력을 보여줬다. © tvN

1999년 드라마 ‘카이트’에 등장했던 괴짜 교수의 실제 모델인 이 총장은 우리
나라 ‘벤처 1세대’ 기업가들의 산파 역할을 했다. 제자였던 김정주 NXC 대표(넥
슨 창업자)는 이 총장의 취임식에 참여해 “성실하지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
지 못하던 20대 시절에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분이였다”며 축하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학교의 목적은 교육보다 학생 스스로 꿈을 찾아서 향해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알아서 하게 방임했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자유를 주고 자립정신을 키워주고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준
것이라며 자신은 한 게 없다는 이 총장은 사실 당시에 금기시되던 연구실 창업을
눈감아줬다. 신성한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연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던 당시에 연구실에서 학생들끼리 의기투합해 벤처기업을 일으
키는 모습을 그냥 지켜봤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게 가게
하면 저절로 신이 나 자기 길을 찾을 것”이라며 “공부 좀 그만하고 세상을 배우
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자존감을 높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래 50년을 위한 신문화 전략으로 이 총장은 ‘QAIST’를 제시한 바 있다. 첫
째, 교육혁신을 강조하며 질문(Question)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내세웠
고, 둘째, 연구혁신(Advanced Research)을 제시하며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대학을 지향했고, 셋째, 국제화 혁신(Internationalization)을 외치며
캠퍼스 글로벌화, 국제공동연구, KAIST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자 했다. 넷째, 기
술사업화(Start-up)를 강조하며 글로벌 가치창출을 목표로 내걸었고, 다섯째,
신뢰(Trust)의 가치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장은 ‘주어진 질문의 답을 찾는 수동적 인재’가 아니
라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남하고 다른
것, 세계 최초인 것을 시도하면 좋을 것”이라며 “각자 능력을 발
휘하면 독창적인 색깔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를 위해 해외 연수, 기업 인턴,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며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한편, 독서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문학 장려하고
교내 미술관 건축한다

“연구를 하더라도 10년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 10년 후 인간이 무엇을
원할지 알아야 그 방향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

르쳐주는 나침반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욕
구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류가 남긴
수백 ~ 수천 년의 기록인 역사책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는 10만 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으며 인
간 본성도 변하지 않았고, 이것이 역사에 기록돼 있으니 역사책
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총장의 소신이다. 이 총
장은 KAIST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는데, 가장 우선 지원
을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로서 어느 분야를 주목할까. 이에 대
해 이 총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분야,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
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중에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10년 후, 20년 후 중요
하다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문제는 역시
인문학을 공부해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 총장은 “과학기술자가 인문학을 공부하면 융합을 통해 부가
가치가 커진다”면서 “또한 문화, 예술, 여행, 미술, 음악 등을 접
하면 새로운 생각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하며 고정관념에서 벗
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AIST는 교내에 미술관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 총장은 “KAIST가 미술관을
마련한다고 하니,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교육환경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KAIST의 교육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총장은 “젊은 세대는 진짜 세상뿐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도 익숙하므로 온라인 수업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것이 빨리 앞당겨졌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KAIST 온라인 수업의 평가는 나빠지지 않았고, 모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들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일반 실험은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온라인 실험도 가능하도록 실험 모듈이 만들어지고 있다.

20년 뒤
세계 20권 대학 가능

이 총장은 새로운 교육과 연구 풍토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와 창업 성과를 축적해 KAIST의 재정적 자립을 모색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연구도, 사업화도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어야 좋다고 생각한다”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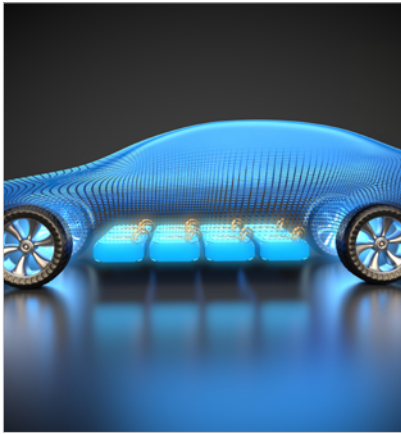
이광형 총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다. 이 총장은 KAIST가 기술과 산업, 과학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과 의견을 나누며 균형잡힌 발전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사진은 지난 4월 12일 열린 교수 대상 비전발표회.



지난 5월 13일 열린 학생과의 비전 토크 행사장에서. 이 총장은 KAIST의 미래가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던질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 학과와 학과 사이를 가로지르는 벽을 허물려 한다.

업가 정신이란 연구를 통해 얻은 지적 자산을 일자리, 돈, 명예 같은 인간의 욕망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KAIST의 지식재산을 갖고 창업을 돕는 한편 외부에 팔거나 빌려줘서 수입을 얻도록 기술 거래도 하는 KAIST홀딩스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KAIST 교수가 연구하면서 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1랩 1벤처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50년 뒤인 2071년 KAIST는 어떤 모습일까. 이 총장은 “이때 KAIST는 단연코 세계 일류 대학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삼성 반도체, LG TV, 봉준호 감독, 윤여정 배우, BTS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KAIST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우리 스스로가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의식이 없었고 따라가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심했으니 된다고 믿습니다. 50년 뒤가 아니라 20년 뒤면 KAIST가 세계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KAIST는 세계 40위권 대학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평가는 크게 세계 학자들에게 받는 평판도, 좋은 논문 발표, 국제화 지수 등이 주요 항목에 포함된다. 이 총장은 “이 중에서 KAIST는 외국인 교수 및 학생과의 교류를 뜻하는 국제화 지수가 떨어진단다”면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유명 교수를 데려오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를 위해 외국인 교수를 지원하고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사업화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렇게 우수한 해외 인력이 들어오면 KAIST는 세계 대학 랭킹 15위에 진입할 수 있고, 이후에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알아서 찾아와 KAIST가 세계 상위 대학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뜻이다. KAISTian



+ 다공성 유기 골격구조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전지 개발

KAIST 화학과 변혜령, 김우연 교수 공동연구팀이 유기 분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골격구조체를 이용해 높은 사이클 성능을 가지는 리튬-유기 하이브리드 전지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현재 무기 산화물 기반의 전극을 대체해 유연하고 가벼운 전지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보기



+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에 의한 비만의 원인 규명

KAIST 생명과학과 손종우 교수 연구팀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들의 약물 순응도를 높이고 질병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동물의 식습관을 조절하는 원리 규명해 네이처 게재

KAIST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체내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부족을 감지하는 장 세포와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도록 섭식행동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논문은 동물이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는 행동을 장내 미생물-장-뇌 축(microbiome-gut-brain axis)을 통해 분자적 수준에서 설명한 최초의 논문이다.

>> 더보기



+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WEF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에 관한 기고문 게재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업의 현황 및 과제와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한 기고문이 세계경제포럼(WEF)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이 기고문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을 재정의하고, 관련 데이터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빅테크기업과 각국 정부의 빅브라더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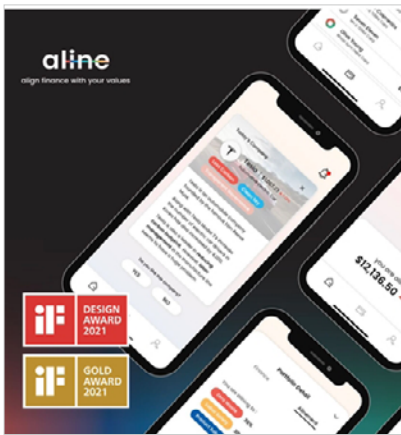
PEOPLE



+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 전산학부에 1억 원 기부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KAIST 전산학부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전산학부 동문으로, KAIST에 진학한 이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까지 석권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김 대표는 자신이 받은 호의를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는 'Pay It Forward'의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으며 기부 배경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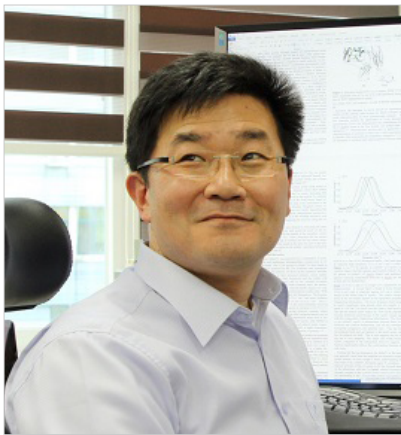
>> 더보기



+ 이상수 교수팀,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 포함 8개상 석권

KAIST 이상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이끄는 디자인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비롯해 총 8개의 상을 받았다. 이 교수팀의 이번 성과는 우리 대학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산학 연계 수업을 통해 수상작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 더보기



+ 화학과 백무현 교수, 현우 KAIST 학술상 수상

'현우 KAIST 학술상' 수상자로 화학과 백무현 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이달 25일 오전 10시 KAIST 학술문화관 정근모 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현우 KAIST 학술상'은 현우문화재단 관수일 이사장이 KAIST에서 우수한 학술적 업적을 남긴 학자들을 매년 포상하고자 기부한 재원을 통해 신설된 상이다.

>>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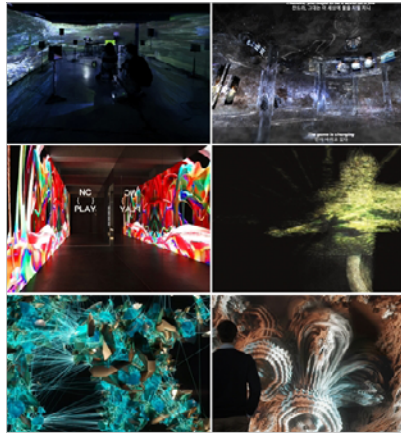


+ 신소재공학과 신병하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KAIST 신소재공학과 신병하 교수를 선정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부 장관상과 상금 1000 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부와 연구재단은 신 교수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 더보기

CAMPUS



+ 문화기술대학원,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특별전 참여

KAIST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오는 6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하는 과학예술융복합 특별전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에 참여한다. 특별전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 우리 대학 문화기술대학원, 엔씨소프트가 함께 메타버스세계에서 환상현실(Fantasy Reality)이 어떻게 펼쳐질 지에 관해 게임과 예술을 수단으로 한 미래판을 선보인다.

>> 더보기



+ 2021 리서치 데이, 전기및전자공학과 김문철 교수 KAIST 연구대상 수상

5월 25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2021 KAIST 리서치데이'가 개최됐다. 'KAIST 리서치데이'는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R&D 분야의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교내 연구 행사다.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해 연구자들의 응집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2016년부터 시작됐다.

>> 더보기



+ KAIST-KT, 'AI·SW 기술 연구소' 공동 설립

'KAIST가 KT와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해 'AI·SW 기술 연구소' 설립에 나선다. 5월 21일 KAIST 본원 제 2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KT는 KAIST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통해 AI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R&D를 고도화 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KT는 교수와 연구원, KT 직원 등 약 2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R&D 공간 마련과 전용 GPU 서버팜 구축 등 연구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 더보기



+ 세계 대학 중 유일하게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 선정

KAIST가 클래리베이트(舊 톰슨로이터)로부터 2021년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5월 12일 오후 4시 대전 본원 총장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안성식 클래리베이트 코리아 대표가 참석해 이광형 총장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 KAIST는 지난 2월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한 2021년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

>> 더보기